

# 가족이 그리운 현대인을 위한 영화

강진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 가족을 테마로 한 영화의 시작

할리우드가 가족 간의 사랑과 갈등을 중심 테마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그전까지 영화 속의 가정이란 멜로드라마나 추리극, 코미디 등의 장르에서 단지 배경이나 소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즉 남녀간의 사랑을 다룬 멜로드라마는 남녀 주인공 당사자만의 사랑을 다루었을 뿐 그들의 사랑이란 가족과는 무관했던 것이다.

미국 뮤지컬 영화사의 걸작 <파리의 아메리카인>을 만든 빈센트 미넬리 감독의 1950년 작품인 <신부의 아버지(Father of the Bride)>는 결혼을 앞둔 외동

딸의 아버지가 겪는 심리적 부담과 불안, 고독을 코믹하게 그려내어 화제가 된 영화로 사랑과 결혼을 가족 안에서 해석함으로써 주목받았다. 외동딸을 시집 보내기 싫은 마음 한구석에는 딸이 사랑하는 남자와 진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법이다. 가족이란 단지 같은 집에서 혈연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을 생산해내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창조적 분리의 공동체임을 드러내어 가족 영화의 획기적인 출발을 알렸던 작품이었다. 이 영화는 1991년 찰스 샤이어가 감독하고 스티브 마틴이 주연한 동명의 영화로 다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가족을 테마로 다룬 영화가 5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간의 갈등이 영화화 할 수 있을 만큼 커졌음을 뜻한다. 2차대전을 겪은 미국의 남성들은 195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낮은 가정과 일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여성들 또한 전쟁터에 나간 남자들의 빈자리를 대신해 군수물자를 생산해내는 일 경제 활동에 매진했던 터라 가정으로 복귀할 것인지, 계속 직장에 다닐지를 고민했다. 거기다 자동차의 대중화에 따른 도시 근교로의 거주지 이동과 교육 기회의 상승, 성을 포함한 사회의 개방화 바람과 유동성의 증가는 가족의 고전적 개념을 뿌리채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이것은 영화제작자들로 하여금 가족이란 갈등과 긴장을 포함한 사회로서 영화가 재현하고자 하는 극적인 구성요건을 갖추었다는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바람에 가족을 다룬 영화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장르를 생산해내었다.

한국에서 가족영화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에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부터다. 장길수 감독의 <아버지>(1997)로부터 조폭가족의 생활사를 다룬 <가문의 영광>(2002) 시리즈까지 가족은 한국영화의 중요한 소재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2013년 1천2백6십만 명의 관객을 끌어들이는 <7번방의 선물>은 가족을 중심으로 다룬 영화 가운데서 최초로 천만관객을 돌파한 영화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 역시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가족의 소중함과 의미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오늘날의 상황이 사회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영화에 자연스럽게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 가족의 중심, 부부관계의 회복

미국의 셔우드 침례교회(Sherwood Baptist Church)가 제작한 영화 <파이어 프루프-사랑의 도전>(2008)가 우리 가정에 던지는 도전은 매우 신선하며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의미 또한 크다.

미국 조지아주 알바니에 있는 셔우드 침례교회의 교역자인 알렉스 켄드릭 목사가 만든 <파이어 프루프>는 교회가 영화를 통해 어떻게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했다. 그 출발점은 가장 현실적이며 긴밀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결혼 7년차를 맞은 소방대장 켈럽 홀트(키크 카메론)는 몸을 사리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조해낼 만큼 용감하고 뛰어난 책임정신과 동료애를 발휘하는 인물이지만 아내 캐서린(에린 베세아)을 소홀히 대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아내에게서 위로받고 보상받고 싶어하지만 아내 또한 그에 못지않게 남편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다. 영화는 이혼의 위기에 다다른 이 가정을 비춤으로서 현대 미국가정들 누구나가 경험했을 법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이혼이 풍속화된 미국사회에서 이정도면 당연히 이혼으로 끝나버렸을 이야기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기독교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영상을 통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고 있게 한다. 즉 이야기를 통해 현실문제를 조명하고 신앙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영화는 해결의 열쇠를 주인공의 아버지에게 맡기고 있다. 아버지도 똑같은 일을 겪으며 헤쳐 나갔던 방법을 아들에게 전수한다. 껄럽은 아버지가 전해준 <사랑의 도전(The Love Dare)>이란 제목의 노트를 읽으며 40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40일간의 도전 내용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고 결혼상담가로부터 쉽게 들을 수 있는 조언들이긴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는 마지막에 드러난다.

껄럽은 40일이 지나도록 전혀 변화가 없는 아내를 보며 아버지에게 묻는다.

"아무리해도 나를 못마땅해 하며 거부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죠?" 아버지는 대답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란다"

#### 가족의 의사소통은 문화의 이해에 달려있다

독일의 손케 바르트만 감독이 만든 영화 <베른의 기적>(2003)은 1954년에 있었던 스위스 베른 월드컵을 배경으로 독일팀이 우승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축구영화 겸 가족드라마이다.

죽음을 넘나든 전쟁과 11년간의 포로생활에 지친 아버지는 군대식으로 자녀들을 엄하게 다루는 한편, 자신이 받은 전쟁의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가족들을 몰아세우기 일쑤다. 결정적으로 막내 아들 마테스가 애지중지 키우던 토끼를 잡아 엄마생일날 식탁에 요리해 놓는 장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의 극치를 말해준다. 몹시 화가 난 마테스의 형은 끝

내 독립해서 집을 나가버리고 가족은 심각한 위기로 치달는다. 이제 이 가정은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기적이 나타난다.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라는 문화에 한 걸음 내딛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한다. 축구 결승전이 열리는 스위스 베른의 경기장으로 아들과 함께 알프스 산자락을 넘는 동반 여행을 하면서 아버지가 낯선 아저씨처럼 느꼈던 마테스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된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고 원했던 일을 이뤄 주려는 아버지의 노력과 여행 중 얘기를 나눌 상대라고는 이 부자밖에 없는 상황은 부자기간에 마음을 소통케 만드는 결정인 기적을 낳게 만든 것이다.

이 영화가 독일에서 개봉되었을 당시 무려 400만 명의 독일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며 열광했는데, 이것은 비단 기적 같은 독일의 우승을 다루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현대사회에서 붕괴되어 가는 가족을 회복함과 동시에 통독이후 침체에 있는 독일 사회에 기적을 불러오고 싶은 열망이 표출되었던 것이다.

#### 어머니와우리가족의지화상-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이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2011)은 1996년 MBC 창사특집으로 방송됐던 노회경 작가의 4부작으로 된 동명의 드라마를 영화로 재탄생 시킨 작품이다.







의사 부인으로 두 자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중년의 인희(배종옥)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남편(김갑수)은 의료사고 때문에 운영하던 개인병원을 맡아먹고 나이 어린 원장 밑에서 실의에 잠겨 마지못해 월급쟁이 의사로 일하고 있고, 백화점 직원인 큰 딸(박하선)은 유부남과 연애 중이며, 사고로 난청인 아들(류덕환)은 삼수생에다 여자친구가 임신 문제를 들고 나와 골머리를 썩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하나 밖에 없는 피붙이인 남동생 근식(유준상) 또한 허구한 날 놀음판을 드나들며 인희의 돈을 갈취하는데 정신이 팔려있다.

이 영화는 모성애라는 전통적인 최루성 무기로 눈물짓게 만든다는 세간의 비평을 피하려는 듯 엄마를 둘러싼 가족들의 골치 아픈 상황을 다양한 소장극을 보는 듯 역동적 연출로 그려내고 있다. 노름에 빠진 근식이 아내와 다투는 장면은 코미디를 방불케 하고, 아들 여자친구의 임신 해프닝은 청춘드라마이며, 유부남과의 사랑에 고민하는 딸 이야기는 멜로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김지영)의 속 뒤집어놓는 모습이야말로 이 영화의 불거리이자 주인공 엄마의 가치를 도드라지게 만드는 대목이다. 겪어 본 사람은 안다. 치매에 걸린 가족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인희는 말한다. '사는게 무섭지, 죽는 건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엄마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조차 자신을 걱정할 처지가 못되나 보다. 자신이 죽은 뒤 살아갈 가족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피에타(Pieta)' 앞을 떠날 줄 모른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로 품에 안은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 혹은 비탄에 잠긴 모습은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더불어 세상의 모든 연약한 존재를 껴안은 기독교의 모성적 사랑을 상징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거룩하고 장엄하며 위대한 이미지를 생성시킨다면, 피에타에 나타난 마리아의 사랑은 세상의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이제는 주검이 되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자식에 대한 엄마로서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모성이 담겨 있다. 세상이 버린 자식이지만 엄마는 끝 어안았고, 사람들은 두려워 도망갔지만 엄마는 아들을 놔두고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딱딱하고 차가운 대리석으로 옷자락 주름 하나하나가 나풀거릴 만큼 정교하게 조각한 미켈란젤로의 뛰어난 천재성에 감탄이 절로 나오기도 하지만 깡마른 체격의 죽은 아들 예수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는 만국 공통어이자 감성의 근원인 모성애에 전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우리들의 마음에 따뜻하고 애잔하며 본성의 기억을 일깨우는 '모성애'를 드러낸다.



**강진우**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부 기독교영상콘텐츠전공 교수, 영화평론가이다. SFC 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카데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